

#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 연구

박정환(조선대학교) · 이진민(연변과학기술대학) · 김계하(조선대학교)

---

##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대상자는 중국 연길에서 거주하는 19—26세 사이의 조선족 대학생 13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다.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PGAR Family function scale, Rosenberg Self-esteem scale, 무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가족기능에서 경제상태, 용돈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 현재 아버지와 동거유무,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 음주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만족, 현재 아버지와 별거하는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무력감은 연령, 학년, 건강상태,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 및 무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건강상태 좋음과 어머니와의 별거, 가족기능이 무력감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들 문화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가족기능, 자존감, 무력감, 조선족, 대학생

---

\* 교신저자: 김계하(조선대학교, kyehakim@hanmail.com)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조선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음(2-1041055-AB-N-01-2015-000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는 지난 몇 년 사이 한국과의 접촉 및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매우 급격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sup>1)</sup> 조선족 부모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조선족 자녀들과 부모와의 별거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sup>2)</sup> 연변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부모와 별거하는 이유가 부모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것이 6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sup>3)</sup>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취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조선족 대학생의 7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는 중국의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게 되는 조선족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학생 자녀인 경우 학습문제, 학교 부적응, 충동적 경향, 가출, 폭력, 범죄노출 등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 심한 소외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성 중독,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건강문제로는 과도한 흡연, 음주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5)</sup> 특히 부모들 중에서도 활동성이 큰 30대에서 60대까지의 청, 장년 계층의 조선족 성인들이 집중적으로 떠나고 있어 이들 가정의 자녀에게서 정신, 심리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줄 사회기관과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특별

1) 김두섭·류정균, "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년,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p. 121.

2) 윤명숙 외,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35권, 2012, p. 73.

3) 루비선,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3, p. 668.

4) 연변과학기술대학 편, 『YUST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연길: 연변과학기술대학, 2010.

5) 문관훈, "연변조선족 결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충남대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한 치료나 중재 없이 대학생이 되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한국에 혼자 나와 있는 성인에 대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걱정은 거세어지고 있으나 사건의 주인공인 조선족 어른들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될 뿐 중국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녀가 이러한 가족 체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공식보고서를 통해 조사되어진 바에 의하면 조선족 인구는 한족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 및 대학교육을 받는 조선족 인구구성 비율이 한족에 비해 높다.1) 따라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조선족 자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의 과도기적 발달과정에 있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아도 가치관의 혼란과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술, 담배, 자존감 저하가 극심해질 수 있으며, 향후 정신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별거 비율이 많은 조선족 사회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경우, 이제는 그들이 성인으로 인식되어지고, 부모와의 별거 기간이 길어 부모별거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지라도6) 부모와의 별거 시기가 길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7) 어린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별거를 오랫동안 경험해 온 대학생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별히 박형원은 기리기 가족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는데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참고로 할 때 아

6) 천희영 외,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8, p. 57

7) 김단, “부모들이 출국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조선족을 중심으로.”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8)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2012, p. 304.

동이나 청소년 자녀와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별거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해 온 조선족 대학생들이 가족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가족기능을 개선시켜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족기능을 낮게 인식하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정서, 심리적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족기능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데<sup>9)</sup> 특히, 부모와 별거한 자녀들은 별거를 하지 않는 동일 연령대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또한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하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1)</sup> 자아존중감은 특별히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sup>12)</sup> 대학생의 경우도 낮은 자아존중감이 중국과 미국 대학생의 음주나 흡연 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sup>13)</sup> 반면 인터넷 중독에는 유의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4)</sup>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 
- 9) Sowislo, Julia Friederike, and Ulrich Orth.,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9, no. 1, 2013, pp. 213-240.
- 10) Gang, Cheng and Zhang Dajun, et al.,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s mediators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anxiety in Chinese emergi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61, no. 6, 2015, pp. 527-529.
- 11) Bakker, Caroline, Martina Elings-Pels, and Michele Reis, "The impact of migration on children in the Caribbean." *UNICEF Office for Barbados and Eastern Caribbean*, Paper No 4, 2009, pp. 8.
- 12) 이해경 외, "남녀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불안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4호, 2013, p. 129.
- 13) Willie J. Hale and Jessica K. Perrotte, et al., "Low self-esteem and positive beliefs about smoking: A destructive combination for male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vol. 46, 2015, pp. 94-99.
- 14) Zhai Hui, and Yang Yanjie, et al., "Self-esteem and problematic drinking in China: A mediated model." *PLoS One*, vol. 140, no. 10, 2015, p. e0140183; Zhang Jie, and Zhao Sib0, et al, "Life satisfaction and its correlates among college students in China: A test of social reference theor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0, 2014, pp. 17-20.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지지는 대상자의 무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5)</sup> 무력감이란 개인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거나 위기 대처에 반복적으로 실패할게 될 때 점차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려는 시도를 못하고 무기력해져가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sup>16)</sup> 이제 사회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삶에 임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무력감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문제이므로 조선족 대학생들의 현 무력감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선족 사회 및 교육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만,<sup>17)</sup> 한국에 유학 온 조선족 대학생에 대한 일부 연구 외에는<sup>18)</sup> 중국에 남겨져 있는 조선족 자녀 중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이나 그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심리적 상태와 그 관련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및 무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조선족 대학생들의 심리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5) 김귀보 외,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2012, p. 487.

16) 조만국, “한국사회에서의 창조상.” 『학습된 무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014년 8월 28일), p. 440.

17) 이인화·김명숙,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문제행동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2013, p. 197.

18) 이민혜 외, “조선족 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3, p. 438.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조선족 대학생 130명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재주인 연길시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족 학생들을 표적모집단으로 편의표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선정하였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  $\alpha=.05$ ,  $power=.80$ , 중간(medium) 효과크기인  $.15$ , 독립변수가 8개일 때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를 구했을 때 109명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 수는 충분히 만족되었다.

### 3. 연구도구

####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Smilkstein이 개발하고<sup>19)</sup> 강성규, 윤방부, 이해리, 이동배, 심운택이 번역한<sup>20)</sup> 5문항의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상호간의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나타내는 5개의 가족기능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을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2점(항상 만족한다)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가능한 총합은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하고<sup>21)</sup> 전병재가 번역한<sup>22)</sup>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의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총 범위는 10-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병재의 연구에서 22 Cronbach's alpha는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2이었다.

19)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6, 1978, pp. 1231-1240.

20) 강성규 외, "가족기능도지수(Family APGAR Scores)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대한가정의학회지』 제5권 제12호, 1984, p. 6.

21) Rosenberg M, "Which significant other?"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16, pp. 829-860.

22)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1974, p. 107.

### (3) 무력감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이 개발한<sup>23)</sup> 무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모두 입증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부정적인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6점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최저 45점에서 최대 27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78이었고,<sup>23)</sup>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2-1041055-AB-N-01-2015-0001)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본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30명의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 중 조선족 대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다시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간호학과 3학년 조선족 학생)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소재주인 연길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강의실, 교정, 기숙사 등을 방문하고,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자료가 연구에만 사용될 것과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린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이었고, 설문지 150부를 배포하여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20부를 제외한 최종 130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신민섭 외,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1990, p. 1.



##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2-1041055-AB-N-01-2015-0001)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본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30명의 조선티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 중 조선티족 대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다시 조선티족 대학생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간호학과 3학년 조선티족 학생)이 연변 조선티족자치주의 소재주인 연길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강의실, 교정, 기숙사 등을 방문하고,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자료가 연구에만 사용될 것과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린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이었고, 설문지 150부를 배포하여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20부를 제외한 최종 130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이 7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21.4세로 21-22세가 43.8%로 가장 많았다. 1학년이 33.1%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69.2%가 본인의 가족경제 상태를 '보통 또는 넉넉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42.3%는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거하고 있었고, 용돈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8.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절반 정도(50.8%)는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건강상태

를 ‘건강하다’고 보는 경우가 57.7%로 가장 많았다.

현재 아버지와 별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7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별거를 하는 이유로는 대상자의 78.7%가 아버지의 취업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과거 아버지와 처음으로 별거를 한 시기는 13-19세가 52.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 66.2%인 86명이었고, 별거 이유로는 역시 어머니의 취업때문이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과거 어머니와 처음으로 별거를 한 시기는 13-19세가 41.9%로 가장 많았다. 음주유무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음주를 한 대상자가 79.%였고, 최근 1년 동안 흡연을 한 대상자는 8.5%로 나타났다<표 1>.

## 2.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정도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최소 2.00점에서 최대 10.00점의 범위 중 평균 6.96점(SD=2.04)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최소 20.00점에서 최대 40.00점의 범위 중 평균 30.48점(SD=3.96), 무력감은 최소 45.00점에서 최대 224.00점의 범위 중 평균 113.56점(SD=34.29)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0)

변수	범주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8(29.2)	
	여	92(70.8)	
연령	19-20세	42(32.3)	21.4±1.47
	21-22세	57(43.8)	
	23세 이상	31(23.9)	
학년	1학년	43(33.1)	
	2학년	31(23.8)	
	3학년	33(25.4)	
	4학년	23(17.7)	
경제상태	보통 또는 넉넉하다	90(69.2)	
	넉넉하지 않다	40(30.8)	
동거인	부모	55(42.3)	
	조부모	28(21.5)	

	기타	17(13.1)	
	혼자 거주	30(23.1)	
용돈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	62(47.7)	
	보통	63(48.5)	
	만족하지 않는다	5 (3.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	66(50.8)	
	보통	52(40.0)	
	만족하지 않는다	12 (9.2)	
건강상태	건강하다	75(57.7)	
	보통	40(30.8)	
	건강하지 않다	15(11.5)	
아버지와 동거유무	예	36(27.7)	
	아니오	94(72.3)	
아버지와 별거 이유 (n=94)	아버지의 취업	74(78.7)	
	부모님의 이혼	20(21.3)	
아버지와 처음으로 별거한 시기(n=99)	6세 이하	13(13.1)	
	7-12세	22(22.2)	
	13-19세	52(52.5)	
	20세 이상	12(12.2)	
어머니와 동거유무	예	44(33.8)	
	아니오	86(66.2)	
어머니와 별거 이유 (n=86)	어머니의 취업	75(87.2)	
	부모님의 이혼	11(12.8)	
어머니와 처음으로 별거한 시기(n=93)	6세 이하	9( 9.7)	
	7-12세	28(30.1)	
	13-19세	39(41.9)	
	20세 이상	17(18.3)	
음주유무	예	103(79.2)	
	아니오	27(20.8)	
흡연유무	예	11 (8.5)	
	아니오	119(91.5)	

<표 2>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정도(N= 130)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기능	6.96±2.04	2.00	10.00

자아존중감	30.48±3.96	20.00	40.00
무력감	113.56±34.29	45.00	224.0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경제상태( $t=2.42$ ,  $p=.017$ ), 용돈에 대한 만족( $F=6.70$ ,  $p=.002$ ), 건강상태( $F=5.03$ ,  $p=.008$ ), 현재 아버지와의 동거유무( $t=3.23$ ,  $p=.002$ ),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 $t=2.48$ ,  $p=.015$ ), 음주유무( $t=-2.05$ ,  $p=.043$ )였다. 용돈에 대한 만족과 건강상태의 사후 검증 결과, 용돈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가족기능 점수가 가장 높았고, 보통, 불만족해 하는 대상자 순으로 가족기능 점수가 낮아졌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가족기능 점수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학교생활 만족( $F=3.62$ ,  $p=.030$ )과 현재 아버지와 별거하는 이유( $t=-2.19$ ,  $p=.03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 만족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는 연령( $F=4.53$ ,  $p=.013$ ), 학년( $F=6.30$ ,  $p=.001$ ), 건강상태( $F=5.73$ ,  $p=.004$ )과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 $t=-2.88$ ,  $p=.0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 학년, 건강상태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21-22세 대상자가 23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무력감 정도가 높았고,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무력감 정도가 가장 높았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정도(N=130)

구분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	6.47±2.04	-1.77	.079	29.84±3.99	-1.18	.242	108.32±33.33	-1.12	.264
	여	7.16±2.01			30.73±3.94			115.73±34.62		
연령	19-20세a	6.81±2.04	0.32	.725	30.60±3.76	1.77	.174	109.12±33.33	4.53	.013* (b)>c)
	21-22세b	7.12±1.95			29.84±3.83			123.09±34.20		
	23세 이상c	6.87±2.23			31.48±4.36			102.06±31.90		
학년	1학년a	7.00±2.10	0.46	.712	30.53±3.92	1.58	.197	100.79±30.12	6.30	.001** (a,b)
	2학년b	6.94±1.88			29.42±3.34			132.16±34.84		
	3학년c	7.21±1.85			31.55±4.15			118.09±31.02		
	4학년d	6.57±2.41			30.26±4.36			105.87±34.74		
경제상태	보통 또는 넉넉	7.24±1.98	2.42	.017*	30.56±3.91	0.34	.736	112.50±33.35	-0.53	.598
	넉넉하지 않다	6.33±2.03			30.30±4.13			115.95±36.63		
동거인	부모	7.46±1.90	1.77	.157	30.53±3.97	0.02	.997	107.47±31.97	1.36	.257
	조부모	6.57±1.71			30.50±4.32			123.04±39.35		
	기타	6.65±2.45			30.53±3.14			117.06±35.29		
	혼자 거주	6.63±2.22			30.33±4.20			113.90±32.15		
용돈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a	7.56±1.75	6.70	.002** (a)>(b)>c)	30.94±3.87	0.87	.423	109.97±31.46	0.89	.415
	보통b	6.51±2.09			30.11±4.08			116.03±36.86		
	만족하지 않는다c	5.20±2.49			29.40±3.58			127.00±35.0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	7.21±2.00	1.26	.286	31.38±3.87	3.62	.030* (a)>b)	106.61±34.51	2.96	.055
	보통	6.79±2.05			29.52±3.96			119.75±32.35		
	만족하지 않는다	6.33±2.10			29.67±3.58			125.00±35.83		
건강상태	건강하다a	7.37±1.98	5.03	.008** (a)>c)	31.13±3.87	2.53	.083	105.41±32.32	5.73	.004** (a)>(b)>c)
	보통b	6.65±2.13			29.68±3.89			122.38±34.67		
	건강하지 않다c	5.73±1.44			29.33±4.20			130.80±32.62		
아버지와 동거 유무	예	7.86±1.87	3.23	.002**	31.11±4.17	1.13	.260	104.33±30.72	-1.92	.057
	아니오	6.62±2.00			30.23±3.88			117.10±35.07		
아버지와 별거 이유(n=94)	아버지의 취업	6.72±2.04	0.92	.358	30.16±3.74	-2.19	.032*	115.99±34.85	-0.59	.558
	부모님의 이혼	6.25±1.86			33.57±5.26			121.20±36.47		
아버지와 처음으로 별거한 시기(n=99)	6세 이하	6.00±2.20	0.67	.573	30.77±4.44	0.28	.844	121.62±39.93	1.19	.317
	7-12세	6.72±1.61			30.73±4.23			126.73±36.15		
	13-19세	6.75±2.07			30.10±3.71			112.25±34.04		
	20세 이상	7.08±2.35			29.75±3.62			108.92±26.37		
어머니와 동거 유무	예	7.57±1.82	2.48	.015*	30.80±3.85	0.65	.514	101.80±29.28	-2.88	.005**
	아니오	6.65±2.08			30.31±4.03			119.58±35.24		
어머니와 별거 이유(n=86)	어머니의 취업	6.69±2.17	0.71	.484	30.15±3.66	-0.69	.502	121.19±34.46	1.10	.273
	부모님의 이혼	6.36±1.29			31.45±6.09			108.64±40.23		
어머니와 처음으로 별거한	6세 이하	6.89±1.90	0.68	.565	33.00±3.39	1.98	.123	109.56±21.10	0.72	.545
	7-12세	6.71±1.96			29.82±4.14			125.86±44.56		
	13-19세	6.90±2.17			29.85±4.10			118.74±31.66		

시기 (n=93)	20세 이상	6.06±2.11			31.12±3.26			114.00±25.29		
음주유무	예	6.78±1.98	-2.05	.043*	30.28±4.11	-1.10	.274	115.41±35.99	1.20	.232
	아니오	7.67±2.15			31.22±3.30			106.52±26.21		
흡연유무	예	6.45±2.01	-0.86	.390	31.18±4.07	0.62	.539	105.55±29.47	-0.96	.339
	아니오	7.01±2.04			30.41±3.96			116.59±36.65		

\* $p < .05$ , \*\* $p < .01$

#### 4.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상관관계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 $r = .26, p = .003$ ) 및 무력감( $r = -.28, p = .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무력감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57, p < .001$ )<표 4>.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단위: 130)

변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
	r(p)		
가족기능	1	.26(.003**)	-.28(.001**)
자아존중감		1	-.57(<.001**)
무력감			1

\*\* $p < .01$

#### 5.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먼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주요 변수로 나타난 학교생활 만족(변수는 만족)과 현재 아버지와 별거하는 이유(변수는 부모님의 이혼)의 2변인,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기능 1변인의 총 3변인을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난 변수(-0.00~

0.12)는 없었으며, Durbin-Watson의 오차의 자기상관 계수는 2.00,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1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기능( $\beta=0.23$ ,  $p=.007$ )과 학교생활 만족( $\beta=0.20$ ,  $p=.018$ )으로 나타났으며( $F=7.58$ ,  $p<.001$ ), 이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0%를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주요 변수로 나타난 연령, 학년, 건강상태 좋음과 건강상태 좋지 않음, 현재 어머니와의 별거 등의 5변인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기능 1변인의 총 6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무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난 변수(-0.00~0.76)는 없었으며, Durbin-Watson의 오차의 자기상관 계수는 2.13,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03~1.23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무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좋음( $\beta=-0.22$ ,  $p=.012$ ), 현재 어머니와의 별거( $\beta=-0.18$ ,  $p=.031$ ), 그리고 가족기능( $\beta=-0.17$ ,  $p=.047$ )으로 나타났으며( $F=7.46$ ,  $p<.001$ ), 이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표 5>.

<표 5>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	t	p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0.45	0.23	2.74	.007**
	학교생활 만족	1.60	0.20	2.40	.018*
	R2=.11, Adj. R2=.10, F=7.58, p<.001				
무력감	건강상태 좋음	-14.92	-0.22	-2.55	.012*
	어머니와의 별거	13.27	0.18	2.18	.031*
	가족기능	-2.90	-0.17	-2.00	.047*
R2=.15, Adj. R2=.13, F=7.46, p<.001**					

\*p<.05, \*\*p<.01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아버지와 별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72.3%, 현재 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66.2%로 나타났다. 그 중 각각 78.7%와 87.2%가 취업으로 인해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민족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머무르고 있는 조선족 부모에 대해서만 일부 관심을 가졌던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는 소외되어 왔던 중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조선족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기능 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6.96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한국의 일 지역 대학생의 가족기능 점수 6.68보다는<sup>24)</sup> 약간 높은 편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비율이 중국의 경우 58%, 한국 6%로 중국이 월등히 높았던 결과<sup>25)</sup>를 고려할 때 부모와는 별거를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아주는 조부모나 친척이 있어 가족기능의 저하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와의 별거 현상이 더 이상 특수한 경험이 아니므로 친척이나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대상자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34.6%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관련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문화를 고려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4) 김해란·김계하,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22권 제5호, 2010, p. 509.

25) Ko Pei-Chun and Hank Karsten,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China and Korea: Findings from CHARLS and KLoSA."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vol. 69, no. 4, 2014, pp. 646-651.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0.48점이었다. 이는 이란 심리학과 대학생들에게서 보고된 자아존중감 점수 29.12<sup>26)</sup>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기숙사에게서 거주하는 한국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31.4<sup>27)</sup>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중간 점수보다 낮은 편은 아니나 선행연구들<sup>28)</sup>에서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덜 받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부모와 별거 중에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sup>29)</sup> 앞으로 사회로 진출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무력감은 최소 45.00점에서 최대 224.00점의 범위 중 평균 113.56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대학생들의 무력감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 대상자와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연구결과를 볼 때,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쪽 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무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은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정신건강에 위험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30)</sup>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이 비록 대학

26) Nader, Hajloo,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psychology studen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vol. 8, no. 3, 2014, pp. 42-49.

27) 민소영,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3, p. 265.

28) 김영란·안민주,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제26권, 2005, p. 105; Ali, Alami and Shahla Khosravan, et al, "Adolescents' self-esteem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Based Nursing and Midwifery*, vol. 2, no. 2, 2014, pp. 69-76.

29) 오화철,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기독교[목회] 상담적 접근-감정억압으로 인한 무력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 p. 185.

30) Katz, Laura and Dean A. Tripp, et al., "Mechanisms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vol. 23, no. 1, 2015, pp. 88-98; van Mierlo M. L., and van Heugten, C. M., et al, "Life satisfaction post stroke:

생일지라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 부모 가정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무력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과의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은 경제상태, 용돈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 현재 아버지와의 동거유무,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 수준이 높고, 본인의 용돈에 대해 만족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가족기능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경제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로 절반 이상이었고,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용돈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 이상’이 96.2%에 달하였다. 이는 조선족 부모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풍족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족 대학생들의 과소비현상이 이슈화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를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sup>31)</sup>

따라서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돈을 벌고 있는 부모와는 달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출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지원만 넉넉히 받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부모와 별거한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과 현재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가족기능 정도가 더 높았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건강관련 의사결정이나 정보 제공에 유의한 출처가 됨으로써<sup>32)</sup>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role of illness cognition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79, no. 2, 2015, pp. 137-142.

- 31) “월 1천원생활비, 조선족대학생 통 큰 씬씀이.” 『청도조선족여성협회』 (온라인), 2010년 2월 26일, (검색일:2015.5.30)
- 32) Zambrana, Ruth E. and Cristian Meghea, et al, "Association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health literacy among underserved racial/ethnic women."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vol. 26, no. 2, 2015, pp. 391-405.

또 다른 선행연구<sup>33)</sup>에서도 가족 응집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할 때 가족기능이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가족기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일 지역 대학생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들보다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sup>34)</sup> 가족기능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 즉,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와의 별거 현상이 더 이상 특수한 경험이 아니므로 친척이나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대상자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지라도 건강관리 제공자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가족을 대체할 만한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만족과 현재 아버지와 별거하는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았는데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활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취업으로 인해 아버지와 별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상실감이 자녀의 자

33) Bigman, Galya and Vandita Rajesh, et al., "Family cohesion and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among Mexican origin adolescen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 Health*, vol. 12, no. 7, 2015, pp. 1023-1030.

34) Seltzer, Judith A. Jenjira J. Yahirun and Suzanne M. Bianchi, "Coresidence and geographic proximity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75, no. 5, 2013, pp. 1164-1180.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으로 인해 아버지와 별거하는 상황이 조선족 대학생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더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유교문화의 규범에 의해 특별히 아버지가 가족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전통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라는 존재는 권위적 인물이고, 의사결정자이면서 가족의 가장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취업으로 인해 아버지와 별거하는 조선족 자녀들은 그들의 가족체계 내에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조선족 학생들이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28)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덜 받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한 부모 가정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무력감은 연령과 학년, 건강상태,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3세 이상의 대상자들에게서 무력감 정도가 가장 낮았고, 학년으로는 1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가 가장 낮았다. 23세 이상인 대상자는 대개 고학년 학생으로서 학교생활 적응이 끝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이므로 무력감 정도는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를 살펴보면 대학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1학년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대상자의 무력감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매년 대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조사하여 개인별로 학년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개

35) Cha Chiyoung and Kim Eunjung, "Assessing the role of culture in Korean goose mothers' live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24, no. 1, 2013, pp. 86-93

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들의 무력감 정도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sup>36)</sup>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강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sup>37)</sup> 본 연구대상자들 역시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은 건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건강관리 제공자들은 대상자들에게서 심리적인 무력감 상태가 나타날 경우 이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도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어머니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들의 무력감이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무력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별거 중인 것으로 보고한 대상자의 무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별거는 비록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일지라도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특히 어머니와 별거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을 접하게 되는 교육자나 건강관리제공자가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 및 무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무력감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조선족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족기능과 학교생활만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up>38)</sup>에서도 가족기

36) 유수정 외, “재가노인의 무력감 영향요인 분석: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증진행위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관련성.” 『노인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3, p. 103.

37) de Almeida S. A., and Geraldo Magela Salomé, et al., "Feelings of powerlessness in individuals with either venous or diabetic foot ulcers." *Journal of Tissue Viability*, vol. 23, no. 3, 2014, pp. 109-114.

38) 양숙경·문혁준, “가족기능, 포레에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2호, 2012, p. 115; Abdollah, Rezaei-Dehaghani, Somayeh Paki and Mahrokh Keshvari, "The

능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의 특징은 개인의 요구보다는 가족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는 유교의 영향 하에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한다.<sup>39)</sup> 그 결과로 가족은 그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 시스템으로서 기여하므로 부모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최근에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조사되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별거를 한 조손족 청소년 자녀들은 인터넷 중독이나 분노 조절장애 또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이러한 학령기 시절에 받은 영향은 성인기를 통해 평생 유지될 수 있는데<sup>41)</sup> 한국에서 시행된 선행연구<sup>42)</sup>에서 대학생들의 낮은 가족기능 인식은 우울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이 대상자들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볼 때,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별거는 가족기능 수준을 떨어뜨리므로 낮은 가족기능은 본 연구대상자인 조선

---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f Isfahan, Iran, in 2013-2014." *Iranian Journal of Nursing & Midwifery Research*, vol. 20, no. 3, 2015, pp. 371-377.

- 39) Sleziaak, Tomasz. "The role of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Rocznik Orientalistyczny*, vol. 1, 2013, pp. 27-46.
- 40) Chen, Yi Lung, and Chen Sue Huei, et al., "ADHD and autistic traits, family function, parenting style, and social adjustment for internet addic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aiwan: A longitudinal stud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39, 2015, pp. 20-31; Rebecca M. Ryan and Amy Claessens, "Associations between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oderating effects of timing and marital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9, no. 7, 2013, pp. 1219-1231; Shek, Daniel T. L., and Lin Li, "Delinquent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Socio-demographic, personal and family determinant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vol. 29, no. 1, 2015, pp. S61-S71.
- 41) Ulrike Ravens-Sieberer and Christiane Otto, et al., "The longitudinal BELLA study: Design, methods and first results on the course of mental health proble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24, no. 6, 2015, pp. 651-663.
- 42) 유정순·정현희, "부모의 문제음주 여부와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보호 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p. 415.

족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별거가 빈번한 조선족 대학생들의 심리적,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들의 가족구조와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만족은 대상자들이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므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대학생들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와 어머니와의 별거,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무력감은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무력감 정도가 낮아지므로 조선족 대학생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별거 및 가족기능이 무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별거는 결국 어머니의 지지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가족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36)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대상자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가족 내 어머니의 지지 저하가 결국 조선족 대학생들의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기능이 떨어질 때 대학생 자녀들이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본 연구결과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별거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조사해 보니 별거와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따라서 대상자 관련 기관들에서는 어머니와의 별거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의 중국 출입은 예전에 비해 높은 편인데 특히 중국 길림성 연길시는 다른 중국 지역에 비해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체 내에서 해결을

43) Linda J. Luecken and Melissa J. Hagan, et al., "Effects of a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ed families on youth cortisol reactivity 15 years later," *Psychology & Health*, vol. 30, no. 7, 2015, pp.751-769.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인 건강제공자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인 교육자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중국인들과는 또 다른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서 및 환경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글로벌을 주창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주요한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결과 조선족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과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연결시 지역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는 현재 부모와의 별거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중국에 남겨진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심리상태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족 대학생들에서 부모와의 별거와 관련된 가족기능의 저하는 자아존중감을 더욱 떨어뜨리고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처럼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일지라도 부모와의 별거가 대상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에는 한족들의 비율이 높은 타 지역의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조선족 대학생들 중 부정적 심리상태 정도가 높은 대상자들을 위해 심리상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성규 외, “가족기능도지수(Family APGAR Scores)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대한가정의학회지』 제5권 제12호, 1984.
- 김귀분 외,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2012.
- 김단, “부모들이 출국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조선족을 중심으로.”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두삼·류정균, “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년,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 김영란·안민주,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격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 이해』 제26권, 2005.
- 김해란·김계하,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22권 제5호, 2010.
- 루비션,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3.
- 문관훈, “연변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충남대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민소영,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3.
-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201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1990.
- 양숙경·문혁준, “가족기능, 포애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2호, 2012.
- 연변과학기술대학, 『YUST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연길: 연변과학기술대학, 2010.
- 오화철,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기독(목회) 상담적 접근-감정억압으로 인한 무력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
- 유수정 외, “재가노인의 무력감 영향요인 분석: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증진행위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성.” 『노인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3.
- 유정순·정현희, “부모의 문제유주 여부와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보호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 윤명숙 외,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35권, 2012.
- 이혜경 외, “남녀 특성고등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불안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4호, 2013.

- 이민혜 외, “조선족 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3.
- 이인화·김명숙, “조선족과 한족 결혼가정 아동집단의 문제행동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2013.
-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1974.
- 조만국, “한국사회에서의 창조상.” 『학습된 무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2014년 8월 28일), p. 440
- 천희영 외,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8.
- “월 1천원생활비, 조선족대학생 통 큰 씬씀이.” 『청도조선족여성협회』(온라인), 2010년 2월 26일, [http://www.cwomen.net/bbs/board.php?bo\\_table=korea&wr\\_id=1755&sca=%EA%88%B0%ED%83%80&page=11\(검색일:2015.5.30\)](http://www.cwomen.net/bbs/board.php?bo_table=korea&wr_id=1755&sca=%EA%88%B0%ED%83%80&page=11(검색일:2015.5.30))
- Abdollah, Rezaei-Dehaghani, Somayeh Paki, and Mahrokh Keshvari,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f Isfahan, Iran, in 2013-2014." *Iranian Journal of Nursing & Midwifery Research*, vol. 20, no. 3, 2015.
- Alami, Ali, and Khosravan Shahla, et al. "Adolescents' self-esteem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Based Nursing and Midwifery*, vol. 2, no. 2, 2014.
- Caroline, Bakker, Martina Elings-Pels, and Michele Reis, "The impact of migration on children in the Caribbean." UNICEF Office for Barbados and Eastern Caribbean, Paper No 4, 2009.
- Cha, Chiyoung, and Kim Eunjung, "Assessing the role of culture in Korean goose mothers' live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24, no. 1, 2013.
- Cheng, Gang, and Zhang Dajun, et al.,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s mediators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anxiety in Chinese emergi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61, no. 6, 2015.
- Cheng J., and Sun Y. H,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left-behind children in China: A systematic review."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 41, no. 4, 2015.
- de Almeida, S. A., and Geraldo Magela Salomé, et al., "Feelings of powerlessness in individuals with either venous or diabetic foot ulcers." *Journal of Tissue Viability*, vol. 23, no. 3, 2014.
- Hajloo, Nader,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psychology studen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vol. 8, no. 3, 2014.
- Galya, Bigman, and Vandita Rajesh, et al., "Family cohesion and moderate-to-vigorous physical

- activity among Mexican origin adolescen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 Health*, vol. 12, no. 7, 2015.
- Judith A. Seltzer, Jenjira J. Yahirun and Suzanne M. Bianchi, "Coresidence and geographic proximity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75, no. 5, 2013.
- Ko, Pei-Chun and Hank Karsten,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China and Korea: Findings from CHARLS and KLoSA."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vol. 69, no. 4, 2014.
- Laura, Katz and Dean A. Tripp, et al., "Mechanisms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vol. 1, no. 1, 2015.
- Linda J. Luecken and Melissa J. Hagan, et al., "Effects of a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ed families on youth cortisol reactivity 15 years later." *Psychology & Health*, vol. 30, no. 7, 2015.
- Rebecca M. Ryan and Amy Claessens, "Associations between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oderating effects of timing and marital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9, no. 7, 2013.
- Rosenberg M, "Which significant other?"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16, pp. 829-860.
- Ruth E. Zambrana and Cristian Meghea, et al, "Association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health literacy among underserved racial/ethnic women."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vol. 26, no. 2, 2015.
- Shek, Daniel T. L., and Lin Li, "Delinquent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Socio-demographic, personal and family determinant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vol. 29, no. 1, 2015.
- Sleziak, Tomasz. "The role of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Rocznik Orientalistyczny*, vol. 1, 2013.
-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6, 1978.
- Sowislo, Julia Friederike and Orth, Ulrich,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9, no. 1, 2013.
- Ulrike Ravens-Sieberer and Christiane Otto, et al., "The longitudinal BELLA study: Design, methods and first results on the course of mental health proble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24, no. 6, 2015.
- van Mierlo, M. L., and van Heugten, C. M., et al, "Life satisfaction post stroke: The role of

- illness cognition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79, no. 2, 2015.
- Willie J. Hale and Jessica K. Perrotte, et al., "Low self-esteem and positive beliefs about smoking: A destructive combination for male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vol. 46, 2015.
- Yi Lung Chen and Sue Hwei Chen, et al., "ADHD and autistic traits, family function, parenting style, and social adjustment for internet addic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aiwan: A longitudinal stud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39, 2015.
- Zhai Hui, and Yang Yanjie, et al., "Self-esteem and problematic drinking in China: A mediated model." *PLoS One*, vol. 140, no. 10, 2015.
- Zhang Jie, and Zhao Sibao, et al., "*Life satisfaction and its correlates among college students in China: A test of social reference theor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0, 2014.

## Abstract

###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Park, Jeong-Hwan(Chosun university)  
Lee, Jin-Min(Ex-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m, Kye-Ha(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for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0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aged 19 to 26 years ( $M \pm SD = 21.4 \pm 1.47$ ) who were living in Yanji, China.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April, 2015. To measure the level of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APGAR Family function scale, a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a powerlessness scale were used to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Economic status ( $t=2.42, p=.017$ ), satisfaction with allowances ( $F=6.70, p=.002$ ), health status ( $F=5.03, p=.008$ ), whether or not students were separated from their father ( $t=3.23, p=.002$ ) and their mother ( $t=2.48, p=.015$ )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and drinking status ( $t=-2.05, p=.043$ )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family function.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satisfaction ( $F=3.62, p=.030$ ) and reasons for separation from father ( $t=-2.19, p=.032$ ). Powerless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 $F=4.53, p=.013$ ), grade ( $F=6.30, p=.001$ ), school satisfaction ( $F=3.10, p=.049$ ), health status ( $F=5.73, p=.004$ ), and whether or not students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 $t=-2.88, p=.005$ ). The results shows that family function was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low powerlessness. The predictors of self-esteem were family fun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Good health, separation from the mother, and family function affected in powerlessness. Therefore, culturally appropriate program interventions are needed in order to increase family function for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separated from a parent.

Key words: Family, Self-esteem, Powerlessness,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투고일 : 2017년 9월 20일 • 심사일 : 2017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

